



베개봉 스키장

Pegaebong Skiing Ground

스키주로특성

Slope Characteristics

스키주로명 (Ski Trail Name)	길이 (m) (Length)	평균너비 (m) (Average Width)	경사각도 (°) (Slope Angle)	승강수단 (Lift)
스키주로 (Ski Trail)	750m	100m	27°	문수수단 (Chair Lift)
스키주로 (Ski Trail)	1 500m	30m	8°	외지식도 (Chair Lift)
스키주로 (Ski Trail)	135m	70m	5°	외지식도 (Chair Lift)
스키주로 (Ski Trail)	5 000m	8m		수평승강기 (Magic Carpet)

종합안내도

GUIDE MAP

알아보기 Legend

- 스키주로 Ski Slope
- 외지식도 Chair Lift
- 수평승강기 Magic Carpet
- 봉사건물 Service Building
- 관리건물 Management Building

겨울강산



3

2025년

루게 제 427호 월간

조국에 대한 노래

뜨거운 정서를 안고 이야기하듯이 (♩=72)

작사 리혜정
작곡 설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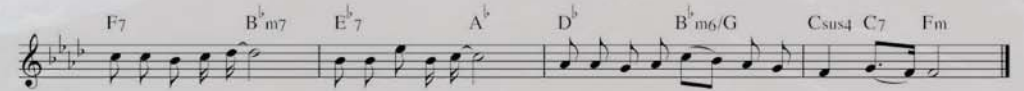
1. 내 조국에 대하여- 노래하려니- 하많은 모습과- 추억이 떠올라-



무엇부터 어떻게- 노래 해야 할가- 너 무나정답고- 소중한 모든 것을-
(후렴)



사랑하노라- 나의 조국을- 그대 없인 한순간도 못 살아



노래하노라- 이제 상제일- 아름답고 위대한 조국을

2. 그대 맑은 샘물을 달게 마시며
유구한 이야기 들으며 자랐네
어려움도 기쁨도 함께 체험하며
언제나 운명을 같이한 조국이여
(후렴)

3. 나의 넋과 숨결이 생의 자욱이
이 땅의 번영에 깃들게 하리라
그 어디에 가있든 그 무엇을 하든
그대와 내 심장 하나로 고통치리
(후렴)

표지: 배개봉스키장을 찾는 관광객들

량강도 삼지연시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배개봉스키장으로 수많은 관광객들과 스키애호가들이 찾아오고있다.

사진 리영철

|| 노래 《조국에 대한 노래》

승리와 영광의 80년

2 || 당창건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시어

일화

4 || 위민헌신의 나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린 선물

5 || 량면수예병품 《꽃과 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6 || 보금자리

8 || 조선여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주시려

11 || 녀성들의 천국

12 ||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우리 녀성들

14 || 공산주의어머니들

16 ||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견인해간다

20 || 호평받는 《은하수》화장품

22 || 여운을 남긴 처녀대학생들

24 || 꿈을 자래우는 산골군의 학생들

26 || 분자표적항암제를 개발한 의학자



27 || 알리신흡입용물약

28 || 배개봉의 《스키바람》

30 || 자신을 증명한 탁구선수 김금영

조국의 품에 안겨

32 || 월드컵을 들어올린 감독

34 || 수예창작가들

36 || 지방진흥의 래일을 마중간다

편지

40 ||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네가 있다

41 || 삶의 메아리

천연기념물

42 || 백두산만병초

43 ||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밝혀내는 사람들

46 || 오랜 역사를 가진 말라기풍습

력사인물

48 || 을지문덕

력사이야기

49 || 과부바위(홍바위)

조국의 력사유적을 찾아

50 || 안주의 백상루를 찾아서

52 || 검은모루유적

53 || 오늘도 울려퍼지는 3.1의 메아리

54 || 룡악산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문송연

당창건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시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부강번영의 활로를 확신성 있게 열어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 80돐이 다가오고있다.

로숙한 당, 세련된 당, 불패의 당, 강철의 당, 인민의 당으로 위력떨치며 승리의 한길로만 이어온 조선로동당의 80성상.

돌이켜보면 볼수록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가장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당을 가진 공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끓어번지고있다.

위대한 령사는 숭엄한 추억을 불러온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당창건로선을 제시하시고 혁명의 핵심성원들과 광범한 대중적지반을 축성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해방된 후 복잡다단한 정치정세하에서도 지체없이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시였다.

해방직후 당창건위업은 많은 애로와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가로놓인 난관을 극복하고 주체적립장에서 당을 창건하도록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였다.

당시 그이께서는 앞으로 창건될 당의 조직, 정치로선을 작성하시였고 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시였으며 복잡하게 얽힌 정세의 실마리를 풀

기 위해 사색을 집중하시다가도 때없이 찾아오는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9월 군사정치간부 및 원산시공산당단체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에서 각 지방에 당조직을 먼저 내온데 기초하여 당중앙지도기관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당창건방침은 당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는 아니라 기층당조직을 먼저 내오고 그것을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였다.

당창건방침을 내놓으신

그이께서는 지방당조직을 튼튼히 꾸리시기 위해 항일혁명투사들을 각 도와 시, 군들에 파견하시였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시어 지방당조직들의 실패를 료해하시면서 항일혁명투사들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며 당창건준비사업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상세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방당조직을 튼튼히 하는것과 함께 당중앙지도기관을 내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밀고나가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이 해방된 후 2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당창건준비사업은 성과적으로 완결되게 되었다.

1945년 10월 10일 마침내 령사적인 당창건위업이 성과적으로 이룩되게 되었다.

당창건위업을 이룩하신 그이께서는 그 강화발전을 위한 사업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참으로 해방후 지체없이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한 간직되어있다.

위대한 령사는 완벽한 계승속에서 더 빛나고있다.

해방과 함께 고고성을 터친 조선로동당의 령사는 오늘날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당

으로 강화발전되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해 창당의 리념과 정신에 충실한 인민의 당, 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어머니당으로 더욱더 존엄떨치고있다.

글 강경수



당창건사적관의 외부와 내부

위민첸진의 나날에

특색있는 경축공연

2012년 3월 8일 평양대극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3.8국제부녀절기념음악회 《너성은 꽃이라네》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당시 일군들은 3.8절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서거 100일추모회를 얼마간 앞두고 있는 때여서 전반적추모분위기를 고려하여 국제부녀절행사를 될수록 조용히 치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을 생각하시는 그이의 마음은 참으로 뜨거웠기였다.

그이께서는 공연을 특색있게 하면서도 여느때와 달리 관람에 초대되는 모든 여성들이 남편들을 데리고오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이채롭고도 특색있는 국제부녀절경축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게 되었다.

관람석 어디라 할것없이 웃음꽃이 피어났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만시름놓고 행복의 시간을 보낸 그날의 기념음악회는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한생에 잊지 못할 순간이였다.

진정 특색있는 3.8국제부녀절기념음악회는 이 나라 여성들의 남모르는 수고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응심깊은 사랑의 결정체였다.

강성원의 봉사자들과 함께

2012년 5월 어느날 한 기계공장에 새로 일떠선 강성원을 돌아보고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봉사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하시였다.

이 소식에 접한 종업원들은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들 속에는 급히 달려나온 관리원도 있었고 무등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계단으로 뛰어내려오는 미용사와 리발사도 있었다.

그이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찌는가, 천천히 오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하지만 꿈같이 찾아온 행복에 그들은 어느새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

그이의 옆자리에 서겠다고 싱갱이를 하면서 량팔에 매달리는 봉사자들...

그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신 그이께서는 어서 사진을 찍자고,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환호를 터치며 겨꿈내기로 그이의 품에 더 깊이 안겨들었다.

강성원에 펼쳐진 그날의 화폭은 우리 여성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애로운 아버이를 모신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류다른 탁아소

2012년 11월에 진행되게 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회준비성원들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문제의 하나는 젓먹이어린이를 가진 대표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조국을 떠맡들 기둥감들을 더 많이 낳아 키울 애국의 마음을 안고 9남매, 10남매의 어머니가 된 여성들중에는 젓먹이어린이를 가진 여성들이 있었고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한 여성들속에도 그런 어머니들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대회에 애기들을 업고갈수는 없는것이여서 그들을 놓고 마음을 많이 썼던것이다.

바로 그러한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젓먹이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도 대회에 참가할수 있게 숙소에 탁아소를 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대표들이 들게 될 려관에 류다른 탁아소가 생겨나게 되었다.

걱정에 목메인것은 애기어머니들만이 아니였다.

그 소식에 접한 대표들모두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겁고도 다심한 사랑에 눈시울을 적시였다.

* * *

량면수예병풍 《꽃과 새》

량면수예병풍 《꽃과 새》는 2019년 1월 중국의 어느한 유한공사 총경리로 있는 해외동포가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삼가 올린 선물이다.

오른쪽에서 첫번째 병풍은 평화를, 두번째 병풍은 부귀를, 세번째 병풍은 우호를, 네번째 병풍은 경사스러운 좋은 일을 상징

한다고 한다.

수예를 고정한 틀은 홍목으로 만들었으며 매 틀의 아래부분 중심에는 왕관과 복숭아, 엽전이 부각장식되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행복하고 부흥하는 나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있다고 한다.



보 금 자 리

(전호에서 계속)

동만의 유격근거지들로는 이처럼 혁명에 참가할 각오가 되어있거나 실천투쟁속에서 직접적으로 단련된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진 정수분자들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주민구성도 대왕청하의 청수처럼 깨끗하였다. 그 기개와 담력으로 말하면 전부가 일당백이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책원지가 마련된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항일근거지들에서 유격대오를 늘이고 당, 공청을 비롯하여 반제동맹, 농민협회, 반일부녀회, 아동단, 적위대, 소년선봉대와 같은 계층별조직들과 반군사조직들을 내움으로써 전민항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의 선대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 한번도 맛보지 못했던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인민에게 주고 인민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고 대변하는 혁명정권이 유격구역마다에서 태어나 인민의 보금자리를 꾸리기 시작했다. 혁명정권은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로동의 권리를 주고 누구나 무상으로 공부하며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를 주었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만민평등의 리념이 실현된 사회,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위해주며 받들어주는 고상한 료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건설하였다. 유격구에는 개화장을 짓고 거들먹거리는 부자도 없었고 빛과 세금에 짓눌려 세상을 한탄하며 통곡하는 사람도 없었다.

유격근거지들에는 그 어떤 수난이나 고통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나래치는 희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온갖 사회악과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주적인 새 삶을 개척해나가는 인민들의 랑만이었다. 인민혁명정부가 나누어준 분

여지에 말뚝을 박아놓고 뽕가리를 울리며 춤을 추는 농민들의 모습은 간도의 불모지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만이 창조해낼수 있었던 세기적인 화폭이며 천지개벽이었다. 끝없는 류혈과 희생을 동반하는 시련에 찬 생활이었으나 사람들에게는 래일에 대한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으며 노래가 있었다.

적들의 그 어떤 도발이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 민족해방의 장엄한 새 력사를 개척해가는 간도지방의 유격근거지들은 조국인민들의 찬탄과 동경을 자아내는 락원으로, 지상천국으로 되었다. 조선민족은 그 거주지와 리념에 관계없이 공산주의자들이 피로써 쌓아올린 이 성새를 조국해방의 유일한 등대로 바라보며 충심으로 지지성원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격구는 사람들이 랑만과 희열과 희망에 넘쳐 사람답게 살수 있는 곳이었으며 수천년을 두고 꿈꾸어온 인민의 숙망을 꽃피워준 리상향이었다.

유격근거지의 존재는 도교 대본영의 우두머리들에게 있어서 만성적인 우환거리로 되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의 북부지대와 잇닿아있는 이 지대를 그들은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었다. 간도일대를 《반만항일의 심장부이며 북으로부터 조선을 지나 일본으로 향하는 공산당의 동맥이기도 하다.》고 한 다짜기 다께오의 표현은 적중한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동만의 유격근거지를 가리켜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불렀다. 이 말속에는 유격근거지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집단의 공포심리가 정확히 반영되어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을

《동양평화의 암》이라고 본것은 이 일대의 령역이 특별히 넓거나 이 지방에 관동군을 제압할만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무력이 진을 치고있어서가 아니었다. 간도에서 던진 작탄이 도교의 궁성이나 대본영의 지붕우에 날아가 떨어지는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간도를 눈에 든 가지처럼 위험시한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반일감정이 극렬한 조선사람들이고 그 조선사람의 대부분이 일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일이라면 일신을 초개와 같이 내던질수 있는 혁명성이 강한 주민들이라는데 있었다.

간도지방 공산당원들과 공청원들의 9할이상 이 조선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념두에 둔다면 일본지배층이 이 지대의 유격구역들을 만주통치에서의 최대의 두통거리로 여기게 된 까닭을 쉽사리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을사조약》과 《한일합병》을 반대하여 국내와 만주광야에서 십년유여의 항쟁을 계속해온 의병시대의 용장들과 독립군 잔류세력의 대부분도 이곳에 남아 화승대로 일본군경들을 겨누고있었다.

조중량국 공산주의자들의 형제적우정과 혈연적뉴대의 본보기도 여기에서 창조되어 만주전토와 전중국적인 판도에로 확대되고있었다.

간도의 유격근거지들은 《동양평화의 암》이 아니라 동양평화의 꽃이며 등대였다.

유격근거지를 꾸리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적과업은 항일무장투쟁을 그 요람기에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던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무차별적인 《토벌》에 의하여 엄중한 시련에 부딪치였다. 그러나 적의 초토화작전은 오히려 간도땅에서 유격근거지의 창설과정을 가속화하는 결

과를 가져왔을뿐이다.

1932년 봄 관동군과 조선군(조선주둔군)은 이른바 간도처리방책이라는것을 협의하였다. 이것은 조선군소속의 립시파견대를 투입하여 간도지방의 혁명운동을 탄압하려는 흉악한 모의였다. 이 모의에 따라 라남사단소속의 일본군련대를 기간으로 하고 경원수비대, 기병, 야포병, 한개의 비행중대까지 포함한 간도림시파견대는 추수, 춘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던 동만 4개 현의 모든 촌락들과 시가지들을 파격으로 삼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위해 걸기한 모든 생명들과 그들의 보금자리들에 사정없는 포화를 들썩였다.

1932년 4월초의 대감자습격을 시발점으로 하여 왕청의 산과 들도 피바다에 잠기였다. 대감자는 한때 리광이 리용걸, 김용범 등과 함께 추수투쟁을 지휘하던 곳이고 김철, 량성룡, 김은식, 리용만, 리원섭 등 투사들이 공안국을 습격하여 무장을 탈취하던 부락이다. 대포와 기관총, 비행기로 무장한 라남19사단의 대병력이 물밀듯이 쏟아들어오자 이 부락에 주둔하고있던 왕덕림휘하의 구국군부대는 마반산을 넘어 서대파로 황급히 철수하였으며 마을의 보위대도 저항을 포기하고 《토벌군》에 투항하였다.

대감자를 점령한 일본군은 련이어 비행기로 왕청시가를 들부시고 주민가옥들에 달려들어 살인, 방화, 략탈을 감행하기 시작했다. 왕청 시내에서 제일 큰 지주이고 부호인 리항종의 집도 점령군에 의해 불타버리였다.

그다음은 덕원리와 상경리가 불바다로 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녀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주시려

사회주의 내 나라에 3.8절이 왔다.

온 나라가 순결한 사랑과 뜨거운 정으로, 애국헌신으로 가정과 사회에 기쁨을 더해주고 조국을 받들어가는 여성들을 축복하고있다.

3.8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향기로운 꽃다발속에, 여성들에 대한 노래가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울리는 속에 우리 여성들이 행복의 웃음을 짓고 있다.

세계 진보적여성들이 3.8국제부녀절을 기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15돛이 되었지만 아직

도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들의 운명문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에 의해 여성들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을 지니고 참다운 삶의 보람을 누려가고있다.

나라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성동맹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진발전을 추동하는 힘있는 부대가 되자》,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받

표하시여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조선여성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그이이시다.

인민들은 오늘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3돛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신 사실을 잊지 못하고있다.

당시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그이를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사람들속에는 여성들도 적지 않았다.

여성과학자, 여성교육자, 여성농업근로자, 여성노동자, 녀

성체육인, 여성예술인...

자애로운 아버이를 모시고 한식술의 정을 나누며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TV화면으로 보면서 인민들 누구나 위대한 령도자를 대를 이어 높이 모셔야 여성들의 삶과 존엄이 끝없이 빛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2012년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진행된 성대한 음악회에 몸소 참석하시여 여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던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이 오늘도 어려온다.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여성들을 위한 성대한 음악회를 마련해주도록 하시고 조국의 튼성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온 나라 여성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안겨주신 그이

이시다.

그날에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에서 우리 여성들은 아버이의 품에 안긴 더없는 행복감으로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었다. 잊지 못할 그날과 더불어 우리 여성들에게 와닿은 사랑의 손길은 얼마인지 모른다.

언제인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한 조사공녀성이 자기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제일먼저 수행하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의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고무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두번째로 이 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몇달전 생산현장에서 만나본 평범한 조사공녀성을 잊

지 않으시고 물어주시며 공장에서 로력혁신자들을 내세워주고 모든 종업원들이 그들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좋은 운동을 벌리도록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그이의 현지지도의 길우에는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연구소와 여성방직공, 제사공들의 합숙을 지어주신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질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려 다심한 정을 기울이신 사실과 더욱더 문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나라가 밝아지도록 여성옷전시회도 조직하도록 하신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그 나날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아버이의 품에 안겨 이 나라



2023년 12월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이 자연박물관과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여성들의 천국

외국인들의 반향

여성들은 부드럽고 아름다우면서도 강직하고 힘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여성이 있어 가정과 사회에 웃음꽃이 피어나며 생활의 향기가 넘쳐난다. 하지만 여성들의 삶이 어느 사회에서나 다 행복하고 보람찬 것은 아니다.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오늘날 행성의 곳곳에서 여성들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들이 거리낌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인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벨라루씨의 한 인사는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도서를 집필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여성문제에 관한 조선의 정책을 소개하

기 위해 이 도서를 집필하였다. 왜냐하면 조선에서는 여성문제가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있고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혁명의 전력사적과정은 여성들이 당과 국가의 관심속에 혁명과 건설에서 힘있는 역량으로 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의 심정만이 아니었다.

세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도 한가정의 꽃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우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차게 떠밀고 나가는 조선여성들의 긍지높은 삶에 초점을 맞추어 널리 소개하였다.

아시아의 어느 한 통신은 《조선여성들은 당과 정부의 관심속에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48년 조선에서 첫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있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었다. 조선당과 정부는 여성들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몽골의 문자메통신, 로씨야인터넷신문 《브레샤 빠레몬》, 에짚트신문 《알 나쉬르》는 조선에서는 남녀평등을 위한 국제법적규범이 현실화되었으며 여성들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근심걱정과 불편도 없이 자식을 낳아 키우며 어머니로서의 긍지감을 안고사는 조선여성들은 참말로 행복하다,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도덕적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있는 그들은 나라의 보배로 떠받들리우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세네갈의 어느 한 방송은 조선에서 어머니들은 별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 국가가 여러 어린이를 가진 여성노동자들의 로동시간을 단축해주고 훌륭한 보육기지들과 아동병원 등을 통하여 그들이 일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 여성중시정책의 우월성을 소개하였다.

우리 나라를 여러 차례 방문한 아일랜드의 한 여성은 《자본주의가 흉내낼수 없는 여성존중의 대화원이 펼쳐진 조선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여성들의 천국이며 리상국이다. 세상에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여성으로 태어나고싶다.》고 하였다.

글 김대철

의 평범한 여성들이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일욕심많은 여성일군을 만나 신것이 그리도 만족하시여 한량 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분, 어 느 한 여성중대를 찾으시여서는 군복입은 여성군인들이 미덥고 대견하시여 오랜 시간 서계시며 그들 한사람, 한사람과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분,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고 영예군인의 길동무가 되어 한생을 바쳐가고 병사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는 여성들을 영광의 단상에 세워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2년전에 진행된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는 뜨거운 모성애와 진함없는 헌신으로 사회주의조선의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빛내여가는 여성들을 온 세상에 내세워주고싶어하시는 그이의 따사로운 손길이 떠올린 경의와 축하의 단상이었다.

전국어머니대회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품들여 준비

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이께서는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여 사랑과정이 흘러넘치는 절절한 연설로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의 어머니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열렬한 조국애를 간직하고 사회와 가정앞에 지닌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특출한 공헌을 한 여성들에게 새로 제정된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였으며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 우리 여성들이 안겨살고있다.

그이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값높은 삶을 누리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나가고있다.

오늘 과학부문에 남성과 동등하게 어깨걸고 첨단돌파의 주로를 내달는 여성과학자들이 있으며 사회주의전야에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애국의

땀을 바쳐가는 미더운 여성농업근로자들이 있다.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여성건설자들, 직업적혁명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준 당의 믿음을 깊이 새기고 성스러운 교단을 지켜가는 여성교육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참으로 세상에는 여성들이 많지만 위대한 령도자의 따뜻한 품속에서 여성혁명가의 영예와 기개를 높이 떨쳐가는 조선여성들처럼 존엄높고 긍지높은 여성들은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것이며 그 길에서 조선여성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빛내여갈것이다.

글 변진혁



해마다 조국에서는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여성들을 위한 성대한 음악회와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된다.




국제여성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인 클라라 제트킨은 1857년 7월 5일 도이칠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책임기를 즐겼으며 특히 아버지가 간수하고있던 프랑크혁명 등을 서술한 도서를 즐겨 읽었다.

15살 나던 해에 사범학교에 입학한 그는 여성 및 사회문제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을뿐 아니라 맑스와 엥겔스의 저서를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제트킨은 1879년에 사회민주당에 입당하였으며 혁명투쟁에 참가하였다. 그는 군중속에 들어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지도함으로써 광범한 근로여성들의 존경을 받았



클라라 제트킨

다. 1889년 7월에 제2국제당이 창건될 당시 비서로 추천된 제트킨은 창립대회연단에서 여성해방에 관한 연설을 하였다.

1910년 8월 단 마르크의 수도 쾰른에서 제트킨의 사회하에 열린 제2차 국제사회주의자녀성대회에서는 1909년 3월 8일에 남녀평등권을 요구하여 파업과 시위를 벌인 미국 시카고의 여성노동자들에게 런대성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제트킨의 제의에 의하여 3월 8일을 국제부녀절로 하기로 하였다.

클라라 제트킨은 여성해방위업에 일생을 바친것으로 하여 《국제여성운동의 어머니》로 불리우게 되었다.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우리 여성들



백명애

얼마전 본사기자는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백명애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세계 진보적여성들이 3.8국제부녀절을 기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서는 여성들의 운명문제가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제기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사회

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습니다.

부장: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봉건의 멍에와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철쇄에 얽매여 몸부림치던 우리 여성들이였습니다.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았고 녀자로 태어난것으로 하여 갖은 천대를 받아야 했던 무권리의 존재, 속절없이 시들며 치마폭을 눈물로 적어야만 했던 여성들이였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가슴아픈 운명의 력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일찍부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시고 주체적인 여성운동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속에서도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도록 이

끌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 안겨 행복의 단상에 오른 여성들의 삶은 오늘날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여성들의 존엄과 긍지가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있습니다.

부장: 정말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여성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였습니다.

3.8국제부녀절에 여성들을 위한 성대한 음악회를 마련해 주시였으며 명절을 맞은 온 나라 여성들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시였습니다.

여성들을 위해 일떠선 치료기지의 현대적인 설비들에도, 여성들이 즐겨 찾는 화장품들에도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 력력히 어려있습니다.

뜻깊은 대회장의 연단에서

한 여성비행사의 아기이름을 지어주시고 사상최악의 시련이 도래한 속에서도 자식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제일 깊이 헤아리시며 새로운 육아정책도 제시하시고 후대들을 위하여 새 교복과 학용품생산에 심혈을 기울여오시였으며 천만가지 국사를 돌보시는 속에서도 특색있는 여성옷전시회가 열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진행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때에도 그이께서는 허리굽혀 어머니들에게 인사하시였으며 어머니들을 미래의 첫째가는 건설자들로 불러주시였습니다.

기자: 오늘 우리 여성들은 한 가정의 작은 울타리를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땀과 지혜와 열정을 조국

의 부강번영에 바쳐가며 삶의 순간순간을 값높이 빛내여가고 있습니다.

부장: 옳은 말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며 애국운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전야와 들끓는 건설장마다에서 스스로 일거리들을 찾아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해나가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워 내세우고 남성들과 당당히 어깨걸고 과학탐구의 먼길을 가고있으며 체육인들은 세계의 하늘가에 우리의 국기가 휘날리게 하기 위해 훈련의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등 그들

속에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진정 여성들의 삶을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서,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수상자로 자라나 값높은 삶을 누려가고있습니다.

그이를 모시고 사는 우리 여성들은 참으로 긍지롭고 행복합니다.

이것은 조선여성들이 세상에 터치는 진정의 목소리입니다.

하기에 우리 여성들은 해마다 오는 국제부녀절을 더욱 뜻깊고 즐겁게 맞이하며 애국심을 지니고 나라의 부강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것입니다.

기자: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고맙습니다.

글 엄향심, 사진 김영호



남녀평등권법령을 환영하여 거리에 떨쳐나선 녀성들(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공산주의어머니들

두 영웅의 어머니

동대원구역 문신1동 86인민반에서 살고있는 80고령의 최옥애녀성은 2남1녀를 낳아 키웠다.

말아들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설계가로 사업할 때 중요대상건설설계를 완성하여 38살에 로력영웅이 되었다.

둘째아들은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한 자식도 아니고 두명의 자식이 모두 영웅으로 될수 있는것은 그들의 건전한 정신도덕적성장을 위해 바친 어머니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러나 최옥애녀성은 자기는 공민으로서, 어머니로서의 본분을 했을뿐인데 두 아들이 영웅이 될줄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하곤 한다.

치녀시절부터 30여년간이나 설계원으로 일하며 사회와 집단앞에 언제나 성실하던 나날 자식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어머니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최옥애녀성은 설계원으로 함께 일하던 남편이 어린 세 자식을 남기고 일찌기 세상을 떠났지만 나라가 시련을 겪던 시기에도 변함없이 자기 맡은 일에 열중하였다. 저녁늦게 퇴근하여서는 서둘러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먹이고 잠자리를 펴주고는 탁상등을 켜놓고 자기 일에 몰두하곤 하였다.

언제나 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그는 자식들이 어려서부터 동무들을 사랑하고 웃사람과 스승을 존경하며 좋은것은 남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지니도록 가정교양을 꾸준히 하였다.



최옥애녀성

이렇듯 강직하고 성실하며 다심하고 엄격한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새겨졌다.

하기에 그의 말아들은 부모의 뒤를 이어 설계원이 되었고 성실한 설계원치녀를 인생의 반역자로 삼았으며 그와 마음과 뜻을 합쳐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성과물들을 내놓곤 하였다.

세해전 말아들은 불치의 병을 앓는 속에서도 중요대상설계를 수행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직한 아들의 뒤통까지 합쳐 일을 더 잘하라고 그는 늘 머느리에게 힘과 고무를 주고있다.

최옥애녀성은 둘째아들이 뜻밖의 일로 부상을 당하고 더는 군사복무를 할수 없다는 의학적결론을 받았을 때에는 사람이 의지가 굳세면 그 어떤 기적도 가져올수 있다고 신심을 안겨주면서 어머니로서의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부어주어 그를 끝끝내 초소에 다시 세워주었다.

나라에서는 어머니라면 응당 할 일을 하였을 뿐인 평범한 최옥애녀성을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수상자로 값높이 내세워주었다.

《애국자어머니》

올해 여든살에 이른 황태윤녀성을 가리켜 사람들은 《영웅의 어머니》, 《애국자어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지난해말 선교구역 등메1동에서 살고있는 황태윤녀성이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수여받았을 때 온 마을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황태윤녀성의 세 자식은 모두 나라를 위해 한몫하는 역군들이다. 그들중에는 조국앞에 큰 공

로를 세우고 로력영웅이 된 아들도 있다.

그러나 그가 공산주의어머니영예상을 받은것은 세 자식모두를 떳떳하게 키운데만 있는것이 아니었다. 그는 생의 순간순간을 나라앞에 지닌 공민의 본분을 다할 일념으로 살아왔다.

김철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단발머리치녀시절부터 교단에 선 그는 조선인민군 군관과 가정을 이룬 후에도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였다.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위해 밤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남달리 몸이 약한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러는 어머니를 볼 때면 황태윤녀성의 어린 자식들은 자기들보다 학생들을 더 사랑하고 위해 주는것이 서운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차츰 철이 들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어머니가 못내 자랑스러웠다.

어린 자식들의 눈에 비낀 어머니의 모습은 그 뿐이 아니였다.

황태윤녀성의 딸 장정순은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작업복을 갈아입고 남새도 가꾸고 집짐승들도 키웠다. 한가정의 살림살이를 늘이려는것이 아니였다.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가 복무하는 부대의 병사들을 자기의 친혈육처럼 돌봐주기 위해 아글타글 애써 일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있기에 짬만 생기면 늘 어머니의 일손을 도왔다.》라고 말하였다.

사회앞에 지닌 의무에 항상 성실하고 대바르며 량심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자식들의 가슴속에 한생의 거울로 새겨져 그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었다.

어머니의 실천적모범은 자식들의 애국적성장에 자양분이 되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그의 자식들은 어머니처럼 의리에 살고 정과 헌신으로 동지들을

위해주며 실력과 실적으로 나라를 받들어갈 일념에 불탔다. 그 나날에 황태윤녀성의 자식들은 나라의 어엿한 일군들로 성장하였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년로보장나이가 지났지만 황태윤녀성의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늘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터밭의 남새를 가꾸고 부지런히 집짐승을 길러 초소의 병사들에게 보내주었다. 그러한 어머니를 위해 자식들이 새 옷을 마련해주면 그는 정히 보관하고있다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왔거나 시집장가를 가는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들려주곤 하였다.

황태윤녀성이 기울인 사랑과 헌신이 한가정의 울타리에서만 머물러있었다면 아마도 그의 자식들은 오늘처럼 성장하지 못했을것이다.

황태윤녀성은 80고령의 불편한 몸이지만 《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는가?》라고 매일

매일 량심의 총화를 지으며 값높은 삶의 자욱을 변함없이 새겨가고있다.

글 연 옥, 사진 김평



황태윤녀성

속담

자식은 낳기보다 키우기가 더 어렵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일보다 자식을 키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교양하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려움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자식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풀이 든다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의 공력이 헤아릴수 없이 많이 든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결심해간다

금성트랙토르공장에서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는 공장으로서 그 면모를 또다시 일신한 금성트랙토르공장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지난 2월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2단계 개건현대화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하여 소재

생산과 공급, 가공과 조립에 이르는 모든 공정이 흐름식으로 되고 유연생산체계가 확립되었으며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된 정밀가공구역과 수지직장, 도장직장이 새로 꾸려지고 공무직장 등이 개건됨으로써 생산의 원활성과 제품의 질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지금 공장의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해 올해 계획을 과학적으로 세

운데 기초하여 그 수행을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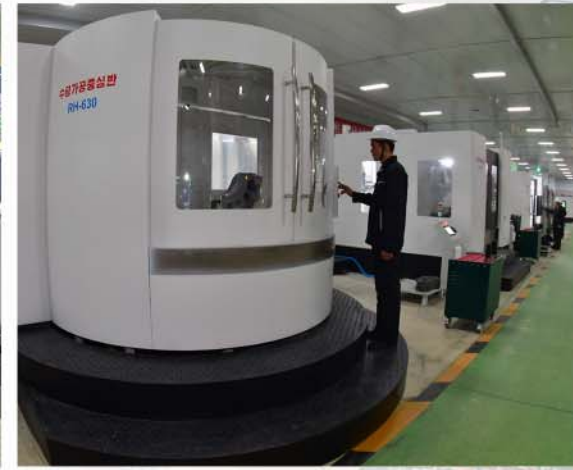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 이바지해갈 능률높은 트랙토르와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 목표를 세운 공장에서는 생산공정들의 작업능률을 최대로 높여나가고있다. 특히 과학기술력제고이자 제품의 질 제고이라는것을 자각한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선진 과학기술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

한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트랙토르와 농기계제작에 필요한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보다 높이고 그것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우고있다.

공장에서는 개건현대화를 실현한데 맞게 종업원들이 맡은 설비와 기대에 완전히 정통하도록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으며 제품의 질개선을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도 활발히 벌리고있다.

결과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공장에서 생산한 트랙토르와 농기계들은 농촌들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에 비해 훨씬 개선된 트랙토르와 농기계들을 생산하고있으며 그 생산능력은 10배로 장성하였다고 한다.

지금 공장에서 다량생산되는 80hp 트랙토르와 모내는기계, 종합수확기들은 전국의 농촌들에 보내여지고있다.

글 강경수, 사진 김영호, 리평렬, 리명국

호평받는 은하수 화장품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은하수》 화장품이 가지수가 늘어나고 질 또한 향상되고 있다.

현재 《은하수》화장품의 가지수는 백수십종에 수백가지로서 사용부위에 따라 피부용화장품, 머리칼미용화장품으로 가르며 일반용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 치료용화장품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피부용화장품만 보아도 세척용화장품, 분장용화장품 등으로 갈라지는데 그 종파 가지수 또한 많다.

세척용화장품에 속하는 갖가지 기능성비누들과 향료를 첨가한 비누들, 분무형, 굴리개형 등의 나이별과 용도에 따르는 여러가지 향수들, 머리칼미용화장품, 분장용화장품의 가지수가 많고 질도 높은 수준이다.

주목되는것은 첨단기술로 개발한 천연적이고 저자극적이며 여러 기능적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화장품들이 로화방지, 미백작용, 자외선방지 등에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는것이다. 특히 조선의 특산 개성고려인삼을 추출하여 얻은 추출물에 20여가지의 천연추출물질들과 생리활성물질들로 제조한 개성고려인삼화장품은 미백, 보습, 영양, 로화방지가 일체화된 다기능성화장품인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제품의 외형 또한 멋쟁이여서 화장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 공장에 꾸려진 화장품진렬대와 화장품 전시장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으며 그들은 《은하수》화장품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평천구역에 사는 한영희녀성은 여러해전부터 《은하수》화장품을 사용하고있는데 그 효과가 좋다고 특히 로화방지살결물, 로화방지물크림은 피부의 수분균형을 조절하고 탄력있으면서도 부드럽게 해주어 더없이 애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 처녀는 얼굴이 피부병으로 오래동안 애를 먹었는데 《은하수》치료용화장품을 쓰고는 말끔히 없어졌다고 하였다.

화장품에 대한 찬사는 녀성들뿐만이 아니다. 대성구역에서 사는 한 남성은 《은하수》화장품은 녀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즐겨 찾는 생활용품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면도전살결물, 면도크림을 비롯한 남자용화장품들은 피부보호작용과 함께 수분균형조절작용, 기름분비억제작용과 오염방지 등의 기능이 첨부된것으로 하여 좋다고 하였다.

공장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에 만족하지 않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 있다.

이곳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세계적인 화장품산업의 발전추세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것과 함께 사람들의 나이와 피부 특성, 성별에 따라 각이한 용도로 쓰일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는 한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다용도, 다기능화장품들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개발하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

글 강경수, 사진 김성철

여운을 남긴 처녀대학생들

2024년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회에서

누구는 바라보고 누구는 마중하고있는 20대 청춘시절은 꿈많은 시절이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다.

그들중에는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된 전국대학생과학연구발표회에서 1등을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처녀대학생들도 있다.

19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여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3학년 학생 박송연은 발표회 에 논문 《경사진 교란성대기경로로 전파하는 에돌이된 처프가우스레이자임폴스빛뭉침의 스펙트르거동》을 내놓았다.

그의 논문은 전문가들의 초



박송연

점을 모았다.

최근년간 자유공간과 교란성대기속으로의 레이자빛뭉침의 전파가 원격수감, 레이더, 자유공간빛통신, 레이자영상처리와 같은 분야들에서 많이 응용되고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교란성대기속에서 여러가지 종류의 레이자빛뭉침의 전파와 관련한 연구들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송연은 강의에서 배운 내용에 기초하여 연구를 거듭하는 과정에 선행리론에서는 밝히지 못한 에돌이효과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는 대담하게 여가시간마다 광학기구의 자체결함에 의한 에돌이효과에 대하여 연구를 거듭하였다. 어떤 날은 과학도서관의 제일 마지막독자로도 되었다. 이러한 나날속에 송연은 자기의 논문을 완성하였다.

폐막식날 영어로 자신있게 논문을 발표하는 19살 난 송연에게 심사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실력은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과학기술학부 2학년 학생 강류경은 우승자들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다.

평양제1중학교시절부터 탐구심이 강하고 발표력이 좋아 이목을 끌었던 류경은 이번 계기



강류경

에 실력은 결코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류경이가 발표한 논문은 《ProCAST에 의한 급수뿔프날개의 구조공정모의와 연구》였다.

언제인가 류경은 화력발전소들에서 급수뿔프날개들의 구조상결함으로 하여 전력생산에서 애로를 느끼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류경은 직접 현지에 나가 급수뿔프날개들을 관찰하였으며 날개에 생기는 기포들을 발견하였다.

류경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이것을 없애는 급수뿔프날개 구조연구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처음 해보는 연구이다보니 욕망뿐이고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더구나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금방 올라온것으로 하여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았다.

차츰 류경은 신심을 잃고 동요하게 되었다.

김유철담임교원은 그러는 류경이를 적극 도와나섰다. 교원은 자기가 연구하던 날개의 재료와 관련한 자료들과 동적균형, 정적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배우고 터득하며 흘러보낸 100여일속에 류경은 모의해석의 방법으로 급수뿔프날개를 구조하는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류경이 내놓은 방안은 주물실수율을 높이는것은 물론 기포도 생기지 않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마음만 먹는다면

《남향진학생이 항감염증약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을 때 놀라웠다.》라고 평양의학대학 연구사 리정희는 말하였다.

남향진은 평양의학대학 기초의학부 5학년 학생이다.

그는 발표회에 논문 《금은화벌꿀싸락약의 항감염증작용에 대한 실험적연구》를 내놓았다.

금은화와 벌꿀은 항감염증작용을 높이는 고려약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림상실천에서는 그 약재들이 따로따로 쓰이고있었다.

세계적으로 비루스감염환자들이 급증하고 그 후유증으로



남향진

하여 질병이 악화되고 지어 기관지염, 폐염이 합병되면서 인명피해가 생기는것으로 하여 상기도염증을 치료할수 있는 고려약을 개발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나서고있었다.

남향진은 그 약재들을 배합하여 항균효과를 배로 높일 결심 밑에 탐구를 거듭하였다.

밤잠을 잊으며 참고자료들을 탐독하고 수십차례의 기초실험, 동물실험을 진행하면서 배합비율을 찾았고 약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향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논문을 발표한 후 그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하면서 인간생명의 기사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준비해나가겠다는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 처녀대학생들이 30대에 어떤 모습으로 독자들앞에 나타나겠는지?

글 김슬기, 사진 김평

상식

겨울철 건강에 좋은 무우

예로부터 《겨울에는 무우를 먹고 여름에는 생강을 먹는다.》는 말이 있다.

가을이나 겨울철에 무우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각종 질병도 치료할수 있다.

- 무우를 삶아먹으면 위를 보호할수 있다.

무우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몸안에 쌓인 로페물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 또한 무우에 들어있는 효소는 소화를 돕는 작용도 한다. 무우를 삶아먹으면 소화가 잘되고 몸이 더워진다.

- 무우를 먹으면 감기를 예방하거나 치료할수 있다.

코감기에 걸렸을 때 무우즙을 내어 가래침이나 숨에 묻혀 코구멍에 넣고있으면 증상이 현저히 완화된다. 또한 목구멍이 아플 때 꿀에 잘게 썬 무우를 재워먹어도 좋다.

- 무우를 생것으로 먹으면 간보호에 좋다.

무우는 아밀라제의 함량이 매우 높기때문에 소화를 돕고 위산과다증을 예방하며 아세트알데히드의 배출을 촉진한다. 또한 무우는 수분이 많기때문에 알콜농도를 희석시키는데도 리롭다.



자연관찰을 통하여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슴에 새긴다.

꿈을 자라우는 산골촌의 학생들

자강도 우시군 우시소학교 글짓기소조에서

자강도 우시군은 도소제지인 강계에서 171km 떨어져있는 산골중의 산골이다. 이 산골군의 우시소학교에는 꼬마시인들이 있다.

5학년과 3학년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최령, 김연경학생이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소년단원으로 손꼽히는 최령이는 학교소년단위원장이다.

소년단에 입단하는 날 최령이는 꼭 훌륭한 학생이 되리라 마음다지였다.

3학년에서 공부를 시작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최령이는 수업시간에 력사에 이름을 남긴 재사들중에는 어릴적부터 시를 잘 지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특히 《술잎에 맺힌 이슬 푸른 바늘에 꿰인 구슬같구나》라는 시구는 최령이를 신비로운 시의 세계로 이끌었다.

수업이 끝난 후 최령이는 선생님을 찾아가 자기도 시를 잘 지어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세상에 자랑하고싶다고 말하였다.

어린 그가 너무도 기특하고 대견하여 김경혜교원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시도 짓고 글 작품집도 내놓을수 있다고 그의 생각을 지지해주었다. 그때부터 글짓기소조에서 최령이의 문학수업이 시작되었다. 사물현상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일기를 꾸준히 써온 최령이는 인차 창작

적재능의 키가 몰라보게 자라기 시작하였고 발견이 있으면서도 동심에 맞게 재치있는 글을 써낼줄 아는 문학신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팔랑이는 나비를 보면서도 즉흥적인 시적감흥을 토로하게 되었고 나라의 역군이 되려는 자기의 소중한 꿈을 시에 담아 노래하게 되었다.

그 나날 우리 조국을 세상에 빛내일 자기의 맹세를 동심에 담아 구가한 글작품집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학습과 조직생활, 좋은일하기에서 모범이 되어 꼭 훌륭한 학생이 되려는 자기의 결의를 반영한 여러편의 동시를 창작완성하였다.

최령이는 이렇게 자기의 꿈과 희망을 동시작품에 하나하나 담았으며 글작품집 《기쁜 명절날》을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였다.

아동문학영예상수상자인 최령이는 자기의 꿈을 마음껏 자라우고있다.

3학년에서 공부하는 김연경

학생도 글짓기를 잘하고 시도 잘 읊는 재간둥이이다.

유치원시절부터 책을 사랑하고 환상을 즐겨한 연경이는 소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본 모든 현상들을 무심히 대하지 않고 일기장에 꼭꼭 남기곤 하였으며 그림으로도 방불히 그려내곤 하였다.

글짓기소조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경이의 글짓기솜씨는 나날이 늘어만갔다. 언제인가는 자기 집마당에서 닭들과 꿀꿀이 등 집짐승들이 노는 모양을 동시 《우리 집마당》에 생동하게 담아 선생님을 놀래웠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후부터 연경이는 키도 마음도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어느날 선생님께서 자기 교향의 조골령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에 대해 알게 된 그는 다음날 동무들과 함께 그곳에 다녀왔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에게 령길에 코스모스를 심어 가꾸고싶은 자기의 마음을 내비치였다. 아직 어리다고만 여겼

던 딸의 생각이 기록하여 어머니는 적극 도와나섰다. 하여 연경이는 동무들과 함께 조골령의 50리구간에 5만그루의 코스모스꽃모를 심고 정성을 기울이였다.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갈 자기의 마음을 담은 동시 《코스모스꽃바다》를 창작하였다. 조골령의 굽이굽이를 밟아본 체험에 기초하여 쓰고 다듬은 작품이어서 선생님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다.

분단위원장인 연경이의 꿈은 이름난 작가가 되는것이다.

글 진룡진, 사진 김강무



자기들의 희망과 꿈을 마음껏 꽃피워가고있다.

분자표적항암제를 개발한 의학자

최근년간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분자표적항암제들이 연구개발되어 임상실천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중에는 고려약기전의 분자표적항암제들이 적지 않다.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이러한 항암제개발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사람들중에는 의학연구원 중앙연구소 항암제연구실 실장 박사 김명순도 있다.

1990년대초 평양의학대학 약학부를 졸업한 그가 이곳 연구소에 배치되었을 때에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 항암제개발은 초행길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그는 《처음에 분자표적약연구라는 학문을 마주하였을 때에는 솟구치는 욕망으로 하여 자신심에 넘쳐있었습니다. 하지만 화학적방법이 아닌 고려약재에 의한 분자표적약개발이 욕망이나가지고서는 실현될수 없다는것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실패가 거듭되고 한해, 두해가 흐르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진짜 성공이나 할걸 그러는지 하는 위구심이 갈마들군 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그의 눈에 비껴든것은

질병으로 앓는 속에서도 비관을 모르고 언제나 웃으면서 우리식의 새로운 분자표적항암제연구사업을 앞장에서 헤쳐나가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라영호연구사를 비롯한 선배들의 락관적인 모습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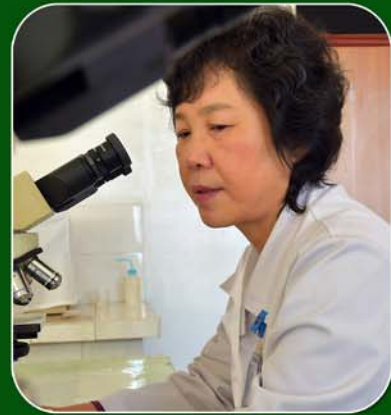
스스로 택한 이 길에서 그 어떤 명에나 보수보다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을 먼저 놓는 그들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맡은 임무를 다 하여야 한다, 이것이 그의 정신적지주가 되어 다시 분발하게 되었다.

람구의 낮과 밤을 이어온 그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근 10년만에 끝끝내 분자표적약인 너삼항암주사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나날에 이것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논문인 《암증식과 관련한 조직프로테아제억제제개발에 대한 연구》는 2008년 10월 로씨야에서 진행된 국제분자종양학토론회에 제출되어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에 기초하여 암치료에 효과적인 새로운 분자표적항암제들을 련이어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켰다.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알약형태로 분자표적항암



김명순

제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위암치료에 효과가 좋은 황금두릅항암알약을 개발한데 이어 폐암과 특막중괴종, 악성홍수치료에 좋은 너삼베르베린



약품개발에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항암주사약도 만들어냈다. 암조직과 그 주변조직에 특이

하게 많이 분비되는 특정요소들을 억제하여 정상세포에 부정적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제거하는 특성을 가지고있는 이 항암제들은 현재 위암, 간암, 유선암, 방광암, 대장암과 악성흑색종 등에 치료효과가 높으며 부작용이 없고 치료기일도 단축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난치성질병환자들에게 생의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그는 오늘도 보다 효능높은 항암제개발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길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글 김대철, 사진 김성철

알리신흡입용물약

강한 항비루스, 항균작용!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계통
질병치료에 효과!
간보호와 면역부활작용!



베개봉의 《스키바람》



스키는 경기종목에 따라 거리지치기용, 내리지치기용, 돌아내리지치기용, 조약용, 자유형용, 행군용 및 등산용스키로 구분한다.

최근 삼지연시에 자리잡은 베개봉스키장에서 《스키바람》이 일고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열기를 띠었는지 이곳으로는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흥성이고있다. 특히 스키기재와 복장을 갖춘 청년들이 사진을 찍고 웃고떠들며 남먼저 주로에 나서는데 역시 스키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운동인듯싶다.

베개봉스키장에는 고산스키주로와 관광스키주로 등이 있는데 주로들마다에서는 뽀얀 눈가루를 날리며 사람들이 지쳐내리고있다. 그들중 대부분은 어지간히 스키훈련을 받았는지 여러가지 기교동작들을 어렵지 않게 수행하는데 전문선수들 못지 않았다.

주로를 지쳐내린 그들은 저저마다 자기들의 소감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귀전을 스치는 바람소리를 비롯하여 스키를 탈 때에 느끼는 긴장감과 쾌감에 대한 것이었다.

초급 및 눈썰매주로에서는 스키교원들이 스키타는 방법도 배워주고있었는데 스키신을 처음 신어보는 초학도들이 있는가 하면 로숙하게 천천히 지치다가 점차 속도를 높이며 능숙하게 장애물을 극복해가는 애호가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눈썰매를 타고 내리며 좋아라 탄성을 울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있었다.

이곳 일군의 말에 의하면 스키장으로는 어린이들로부터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명절을 비롯한 휴식일이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고 한다.

베개봉의 《스키바람》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더 큰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글 강은순, 사진 리철





2024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된 2024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식경기에서 우리나라의 김금영선수가 1위를 하였다.

자신을 증명하는 탁구선수 김금영



미소를 지을 때면 두눈과 입모양이 누구나의 눈길을 끌어다시 보게 되는 처녀탁구선수 김금영.

2024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여자단식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후 그는 아시아탁구계의 혜성으로 불리워졌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소학교시절 리과대학 연구사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은정구역청소년체육학교(당시) 탁구소조를 찾아간 때부터 김금영은 열심히 탁구를 배웠다.

그는 수년세월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장에서 땀을 흘리며 기술을 연마하였다.

김금영이 해볼체육단 탁구선

수로 소환되어갔을 때 체육단의 일부 감독들은 그가 키가 작고 공격력이 약하기때문에 대상선수로나 적합할것이라고 나름대로 평하였다.

그러나 그를 선발한 감독 김윤미의 생각은 이와는 달랐다. 금영은 총명하고 은근히 고집이 세면서도 감독의 요구를 언제나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는 훈련품성을 가지고있을뿐 아니라 탁구선수로서 전술활용능력이 높고 기초기술을 착실하게 체득하고있었다.

김윤미감독은 금영의 이런 성격적기질과 우점을 파악한데 맞게 훈련을 시켰지만 경기들에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는 금영이가 경기들에서 자기의 육체기술적능력을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김금영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것은 자신감이 부족하기때문이라는 결론을 찾아냈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반드시 경기에서 이기는것으로써 실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하루에도 수십번 반복하는 감독의 이 말은 금영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그후 그는 자기 힘과 기술을 믿고 배심든든하게 경기들에 임하여 성과를 거둬으로써 마침내 국내탁구전문가들의 시야에 들게 되었다.

2019년에 진행된 아시아청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년탁구선수권대회 단체전경기들에 출전한 금영은 팀이 우수환 성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자신을 믿고 시작된 탁구소녀의 첫걸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폭도 커지고 속도도 빨라졌다.

《자신을 증명하라》

김금영선수의 훈련일지에는 이런 글이 적여져있다.

《경기에서는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있을수 없다. 반드시 훈련을 통하여 검증되고 준비된 선수만이 경기에서 성과를 거

둘수 있는것이다. 자신을 증명하라.》

지난해 7월말에 진행된 제33차 올림픽경기대회 탁구 혼성복식경기에 김금영은 리정식선수와 출전하였다.

우승후보팀에 대한 각이한 견해와 예평이 엇갈리는 속에 김금영, 리정식혼성복식조는 세계적인 강팀이라고 뽑내던 일본팀과의 첫 경기에서 담벽과 같은 방어와 무자비한 공격으로 연속 점수를 올려 승리를 거두었다.

높은 기술로 맞다든 강팀들과의 경기를 성과적으로 치르고 은메달을 쟁취하는데 적극이바지한 김금영은 세계탁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감탄과 놀라움을 자아냈다.

금영의 실력은 2024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더 높이 발휘되었다.

중국팀과의 여자단체경기에서 우리 팀의 첫 선수로 출전한 그는 세계여자탁구선수순위에서 1위인 상대선수의 강력한 공격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안전한 방어와 드센 반공격을 들이대어 3:1로 경기를 결속지었다.

왼손잡이잡기선수로서 빠른 이동능력과 높은 근거리방어능력, 날카로운 공격력을 소유하고있는 김금영선수는 여자단식경기에서도 자기식의 독특한 경기전법으로 세계여자탁구선수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상대선수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물리치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그는 온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일명 탁구《천재》라고 불리우는 일본선수를 종합성적 3:1로 타승하고 영예의 우승컵과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여러 나라의 언론들은 김금영을 《아시아탁구계의 혜성》이라고 하면서 그의 뛰어난 경기능력과 높은 심리적자질, 방어 및 반공격기술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김금영은 우리나라의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출전력사상 단식경기 첫 우승자로 되었다.

아시아탁구계에 새롭고 청신한 모습을 보여준 김금영선수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분발하고있다.

글 려해, 사진 김평



리성호

월드컵을 들어올린 감독



국제축구연맹 2024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여자축구선수들

지난해 콜롬비아에서 진행된 국제축구연맹 2024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기간 FIFA 기자는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

《리성호는 팀이 경기활동에서 최선을 다할것을 요구하는 감독이다. 상대팀의 전술에 유연하게 대처하는것이 바로 조선여자축구팀의 위력이며 리성호감독의 실력이다. 그는 앞으로 팀의 경기가 잘되면 그것은 선수들의 공로이고 경기가의 의도했던대로 되지 않게 되면 자기의 책임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20살미만 조선여자축구팀을 우승으로 이끈 리성호감독은 축구와 함께 흘러온 나날을 추억할 때면 언제나 어머니의 모습부터 떠올리곤 한다.

그의 어머니는 조국이 해방되기 한해전인 1944년에 일본의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막별이군가정의 맏딸로 태어났다.

식솔이 많아 살림은 여의치 않았지만 어머니는 조국의 따뜻한 사랑속에 일본땅에 일떠선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학교와 대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였다.

조선대학교시기 동무들과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긴 어머니는 희망대로 평양의학대학에서 의과공부를 하였다.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보건일군으로 사업하던 어머니는 축구선수생활을 하던 셋째아들 성호가 뜻밖의 부상으로 자기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나라를 받드는 공민의 마음은 그 어디에 가있든 그 무엇을 하든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힘과 고무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리성호는 부모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가 아니라 조선체육대학으로 갔으며 졸업 후에는 월미도축구단에서 5년간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는 세계축구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면서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훈련방법과 축구기술, 전술을 연구하느라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 나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업을 조금이라도 돕겠다면서 선진체육기술자료들을 번역하여 보내주곤 하였다.

2014년에 월미도축구단 여자축구 1조 감독으로 임명받았을 때 마련해두었던 새 운동복을 입혀주면서 그토록 기뻐하던 어머니는 그에게 조국의 명예를 떨치는 체육인이 되라는 당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그 당부를 마음속에 새겨안은 리성호는 월미도축구단 여자팀을 단 4년만에 국내순위 8위에서 1위로 올려세우고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축구감독으로 선정되었다.

2023년 12월부터 국가종합팀 책임감독의 중임을 맡은 그는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국제경기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선수들을 육체기술적으로나 정신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시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이라는 국호를 세계월드컵력사

에 세번째로 새긴 주요인물로 되었다.

국제축구연맹 2024년 20살미만 여자월드컵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팀을 련전련승으로 이끈 책임감독의 공로를 높이 치하해주실 때 리성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며 목메여 울음을 터치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어머니, 보고계십니까! 따사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이 아들은 나라의 명예를 온 세상에 떨친 체육인으로 자랐습니다.)

얼마전 그는 아름다운 보통강기슭의 체육인아빠트에 새 보금자리를 폈다.

나날이 더해만지는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그는 오늘도 푸른 잔디우를 달리고있다.

글 연옥, 사진 김평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리성호(왼쪽에서 두번째)

상식

노래와 정서

노래와 정서는 건강한 사람은 물론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이나 병약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다.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걷는것과 맞먹는 운동효과를 본다. 걸음을 걸을 때나 차를 타고갈 때 그리

고 휴식참에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혈압도 내려가며 돌림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 는 학생들이 일반과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맞는 룰이 높다는것도 밝혀졌다.

수예 창작가들

정에 선조들이 창조한 수예기법들을 빛내이고 더욱 발전 풍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학부소장은 《조선수예는 섬세한 예술적기교를 요구하는 고상한 예술인 동시에 다양한 기법이 창조되는 민족적특성이 강한 예술이다.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조선수예의 우수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연구소에서는 장단수, 평수, 감침수, 퇴풀이수, 솔잎수, 씨알수, 십자수를 비롯한 전통적인 수예기법들을 고수하면서도 모든 사물현상들을 보다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할수 있게 더욱 세련시켜나가고 있다.

연구소에서는 기량발표회, 작품합평회를 자주 조직하여

창작가들이 새로운 수예기법과 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 3면립체수예, 량면이색이형태수예를 비롯한 새로운 수예기법들과 수예품의 향기보장기술, 나노분말처리에 의한 수예품의 퇴색방지기술을 비롯한 가치있는 기술들이 개발 도입되었다.

연구소의 창작가들이 개발 도입한 3개의 각이한 화폭을 한 평면에서 립체적으로 부감할수 있게 수놓은 3면립체수예와 량쪽면에 서로 다른 대상을 서로 다른 색으로 수놓은 량면이색이형태수예는 아름답고 섬세한 조형적형상과 기발하고 독특한 기교, 예술적품위가 높아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화폭에 수놓은 대상의 향

기가 오래동안 보존되게 함으로써 감상효과를 높일수 있게 한 수예품의 향기보장기술, 수예품의 보존기일을 종전보다 2.5배로 늘이고 햇빛에 대한 견딜성도 높인 나노분말처리에 의한 수예품의 퇴색방지기술도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속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연구소에서는 자체의 기술력량에 의거하여 컴퓨터자동수예기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으로써 기계수로 각종 옷장식수예와 회화수예품을 창작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결과 연구소에서는 기계수예품의 생산성과 회화적형상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었다.

성파에 자만을 모르는 연구소의 창작가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기호, 정서에 맞는 각종 수예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글 김지성, 사진 리영철



평양수예연구소를 찾은 외국인들



평양수예연구소를 돌아보고 외국인들이 남긴 감상글중에서



섬세한 기법으로 수예작품을 완성해간다.



평양수예연구소의 창작가들이 창작한 수예작품들의 일부



지방진흥의 레인을 마중간다

동포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길은 얼마전 평양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대동강의 남쪽에 자리잡고있다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된 평양시 강남군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강남군을 선택한것은 인생말년에 이역땅에서 애달픈 향수로 세월을 보내고있을 미국의 로스앤젤스에서 살고있는 최동환동포에게 한시라도 빨리 고향의 소식을 전하고싶다는 조카인 강남군 읍 23인민반 최두일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몇년어간에 강남군이 몰라보게 변모되고있다.

조상대대로 이곳에서 살고있다는 최두일의 말에 의하면 지난날 강남군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지하자원과 산림자원도 없고 공업토대도 빈약한것으로 하여 국가의 지원에 의해서만 살아갈수 있는 고장으로 알려졌었다고 한다.

그러했던 강남군이 오늘은 사람들로부러 《강한군》, 《강자군》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며 자

기 발전의 모습을 뚜렷이 하고있다.

최근에만도 강남군사람들은 두해전에 300여세대의 농촌살림집건설을 끝낸데 이어 지난해에는 70여일만에 160여세대의 농촌살림집과 2동의 탁아소와 유치원, 공공건물들을 일떠세워 군의 면모를 보다 일신하였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된 강남종합체육경기장을 보더라도 강남군사람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것으로서 타곳에서 이 고장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부러워하고있다.

지금 강남군사람들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농사면 농사, 건설이면 건설 그 무엇도 할수 있다고 말한다.

하다면 이런 신심, 이런 배짱이 과연 어디서 생겨난것인지...

그것은 강남군사람들에게 제손으로 이루어낸 자기의것이 있기때문이었다.

강남군에는 세멘트와 모래, 벽돌과 타일, 기와, 수지판, 위생자기, 건구류를 비롯하여 건

설용자재들을 생산보장할수 있는 공장들과 기지들이 꾸려져있고 중기계와 중량화물자동차 등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수단들을 그뿐히 갖춘 건설력량이 있다.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것이 아니라 강남군사람들이 부닥치는 고난을 이겨내며 자체의 힘으로 하나하나 알심있게 이룩해놓은 결과물이다.

세멘트공장만 보아도 그렇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공장의 세멘트생산능력은 낮은 수준에 있었다.

이것은 지방발전의 진흥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강남군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애로를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자면 세멘트공장의 현존생산능력을 끌어올려야 하였다.

그리하여 세멘트공장의 능력확장공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파쇄공정, 소성공정 등 생산공정들을 증설하는 공사는 하나의 공장을 일떠세우는 품과 맞먹었다. 그러나 강남군사람들은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보낼 지원물자를 마련하고있는 강남군 읍 130인민반 윤봉윤가정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는 강남군 강남2유치원 어린이들





강남종합체육경기장에서



강남군문화회관에서

육중한 소성로를 통채로 운반하여 설치할 때에도, 벨트콘베어의 능력을 높이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딪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으로 뚫고 헤쳐나갔으며 마침내 공장의 세멘트생산능력을 종전에 비해 3배이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세멘트공장의 능력확장공사를 통하여 자기들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절감한 강남군사람들은 이어 단 1개월만에 건재공장개건현대화공사도 완결하여 벽돌생산량을 60배이상으로 끌어올릴수 있게 하였다.

강남군사람들의 창조본때는 기와생산기지, 마갑건재생산기지, 위생자기생산기지를 일떠세우는 건설공사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되었다.

이렇게 한해한해 발전의 디딤돌들을 차곡차곡 마련하는 과정에 강남영예군인피복공장, 강남약국, 군문화회관, 강남2유치원을 비롯한 창조물들이 강남군의 곳곳에 일떠서게 되었다. 한편 이 나날 10여년세월 군건설사업에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는 윤봉윤, 리영화부부를 비롯한 많은 강남군사람들이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자강력의 체현자들로 성장하였다.

자력은 건설에서만 파시된것이 아니었다. 지난 기간 군에서는 자체의 인재력량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 군의 과학기술력을 부단히 증대시켜나갔다.

결과 군의 비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수 있는 지적자원이 강화되고 자체의 원료로 수십가지의 질좋은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는 강남식료공장과 순수 벼겨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벼겨가스발전소, 경소마그네샤합판에 의

한 건재생산기지, 아크릴계철감생산기지를 비롯한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갖춘 공장들이 일떠서게 되었다.

지방중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의해 나날이 변모되는 강남군의 모습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자기 힘을 키워나갈 때 행복이 마중온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글 김성영, 사진 김강무



강남군사람들이 자력으로 일떠세운 창조물의 일부



강남군의약품관리소에서



강남식료공장에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 장백로 최영숙
사촌동생 앞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네가 있다

보고싶은 나의 동생 영숙아,
그동안 잘 있었느냐.
나와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있다. 이제는 내 나이도 거의 여든이 되어온다. 그리고보면 영숙이 너의 나이는 예순살이 쯤 넘었겠구나.
너의 식구들은 다 잘 있는지?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추억속에 산다고 하더니 나도 멀리에 있는 네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럴수록 더욱 보고싶은 마음이 앞서는구나.
아직도 나는 20여년전에 너의 어머니가 압록강을 건너 우리 어머니를 찾아 조국방문의 길에 올랐던 때를 잊을수가 없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와 너의 어머니, 두 자매의 상봉은 그야말로 50여년만에 이루어진것이였지. 사람의 한생애 50년이 어디 적으냐?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할머니는 해방전에 어린 딸자식을 보리쌀 한말값에 팔았던 일을 두고두고 잊을수 없기에 너의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를 꼭 찾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었다.
조국의 운명속에 한가정의 운명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있기에 나는 비록 나이는 많지만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뭔가 하나라도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있다.
나는 지금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연구사로 사업하면서 력사유적들의 보호관리사업에 이바지하는 성과물들을 하나하나 이룩해가고있으며 아들도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 함께 일하고있다.
두달전에 잡지 《금수강산》의 기자선생님들이 찾아와서 나를 취재하여 2025년 1월호에 크게 소개해주었다.
그때 기자선생이 내 동생 금숙이와 딸을 함께 사진찍었었는데 그 사진을 이 편지와 함께 보내려다.
금숙이네는 작년 4월에 화성거리 2단계 살림집건설이 완공된 후 그곳에 새 보금자리를 폈다. 그들이 살던 집도 그만하면 괜찮았는데 나라에서는 더 좋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혜택으로 수도며 지방도시, 농촌, 산골마을 그 어디에서나 현대적미감에 맞는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으니 계절이 따로없이 새집들이풍경이 펼쳐지고있다.
번천하는 조국소식을 너에게 더 자랑하고싶지만 이만 쓰겠다.
영숙아,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네가 있다는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너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건강에 류의하길 바란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축전2동 10인민반 반 17층 3호
고신숙언니 보냄

삶의 메아리

조선대학교 문학력사학부 어문학과 4학년 조미구(2024년 10월 조국방문의 나날에)

조국방문은 나에게 삶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삶에 대하여 특별히 골몰하게 된것은 조국에 와서 처음 가극관람을 한 이후부터이다. 월미도영웅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

지난 1950년대 가렬처절하였던 조국해방전쟁시기 단 4문의 해안포로 맥아더의 5만대군과 맞서 월미도를 3일간이나 지켜낸 리대훈중대의 영웅적투쟁에 대해서는 영화와 소설을 통해 이미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눈앞에서 실지 전사들의 생활과 전투가 펼쳐질 때 나는 마치도 내가 불타는 월미도에 영웅들과 함께 있는듯한 착각에 빠졌고 2시간이 언제 어떻게 흘러갔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였다.

가극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영옥이의 희생장면이였다.

나의 눈앞에서 애어린 무전수 영옥이가 자기의 온몸으로 전화선을 잇고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 한순간 모든것이 멈춰버린것같았다.

꿈과 희망에 넘치던 사랑스러운 무전수처녀의 마지막순간이 너무도 짧았다.

마지막말을 남기는 그 어떤 장면도 대사도 없었다.

그 아픔에 일순간 굳어져버린 나의 두눈에서는 해안포병들이 영옥이를 찾아낸 후에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뿐이 아니라 모든 동무들, 조국의 관람자들도 울고있었다. 나는 이미 월미도의 내용을 알고있었다.

영화와 소설을 몇번 보아왔고 소설분석도 여러번 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토록 강렬한 충격을 받는것인가.

아마도 그것은 영옥이의 삶이 너무도 소박하고 생이 너무도 짧았기때문일것이다.

정말 희생으로 인생은 끝나 는것인가.

영옥이와 함께 월미도의 끝 끝한 병사들도 그렇게 모두 전사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짧은 삶, 고귀한 희생이 우리에게, 세월에 새긴 진리가 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조국보다 귀중한것은 없다!

비록 생은 한순간에 끝난다 해도 지켜야할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월미도용사들은 오늘도 후대들의 마음속에 영웅으로 남아있다.

영옥이는 최후의 전투를 앞두고 중대장으로부터 부대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영옥이가 떠난다고 랫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또 그 명령을 집행하였더라면 영옥이는 얼마든지 살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월미도를 떠나지 않았고 동지들곁에 남았다.

조국을 지키는것이 곧 자기의 푸른 희망, 아름다운 미래를 지키는 길이기때 주저없이 목숨을 바쳤고 집단과 동지들을 위

해 자신을 희생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영옥이의 죽음은 공포와 비애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메아리로 되어 이 땅에 승고한 정신을 남기였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고 세대도 계속 바뀌고있지만 영옥이가 남긴 고귀한 삶의 메아리는 년대를 넘어 끝없이 공명되며 후대들을 분발시키고있다.

영옥이의 생의 메아리는 이 역땅의 평범한 조선대학교 학생인 나의 마음속에서도 울리고있다.

그 무엇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 영옥이가 월미도를 지켰다면 오늘 내가 지켜야 할 곳은 민족교육의 교단이 아니겠는가.

자신을 지켜주고 보살펴준 고마운 품을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지켜가고 빛내려는 마음, 수령과 조국, 조직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각오만은 나도 영옥이와 다를바 없다.

어제는 영옥이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오늘은 우리가 자신의 청춘과 한생을 바쳐 이 역땅에서 조국을 지켜야 한다.

어느덧 가극은 막을 내리고 극장에 오래도록 울리던 박수 소리도 멎어버렸지만 여전히 내 머리속에는 불타는 월미도가 생생히 남아있다.

영웅의 넋을 이어가는 새세대 우리가 있기에 영옥이의 생은 짧았지만 그의 삶의 메아리는 영원할것이다.

백두산만병초



만병초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떨기나무이다. 만병초는 우리 나라 북부고산지대에 퍼져있다. 나무의 높이는 20~50cm이다. 줄기는 누워뻗으면서 많은 가지를 친다. 마디에는 해마다 생기는 비늘쪽이 붙어있다. 잎은 어긋나며 가지끝에서는 배게 붙어 돌려난 것처럼 보인다. 잎몸은 길둥근 모양 또는 거꿀달걀모양이고 윤기나며 번두리는 뒤로 제껴져 말린다. 6~7월경 가지끝에 고른꽃차례를 이루고 연한 노란색의 아름다운 꽃(직경 3cm정도)이 모여 핀다.

꽃받침은 매우 작고 꽃갓은 종모양이며 얇게 다섯갈래 져다. 수꽃술은 10개, 암꽃술은 1개이다. 열매는 길둥근 모양의 튀는열매이며 밤색털이 있다.

번식은 씨로 하며 포기가르기로도 한다. 잎에는 안드로메도톡신, 플라보노이드, 우르솔산 등이 들어있다. 만병초는 일반적으로 관상용으로 심어 가꾸며 고려의학적으로는 잎을 혈압낮춤약, 염증약 등의 원료로 쓴다. 민간에서 관절염, 관절붓기, 신경통 등에 잎을 달여먹기도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특별히 보호관리되고있는 백두산만병초는 백두산의 넓은 지역과 그 주변에서 무리로 자라고있다.

눈속에서도 활짝 피어나는 만병초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만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는 백두산풍치에서 또 하나의 황홀한 절경을 이룬다.

백두산만병초는 백두산의 자연풍치를 돋구어주며 만병초무리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학술적의의가 있다.

글 김일봉, 사진 송대혁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밝혀내는 사람들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민족사에 천년강국으로 뚜렷한 자취를 남긴 고구려, 넓은 령토와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있던 고구려는 조선민족의 커다란 자랑으로 되고있다.

그러한 고구려의 역사를 더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내어 민족사의 유구함과 보물고를 더해가는 사람들속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고고

학연구실의 연구사들도 있다.

오래전부터 이곳 연구집단은 단군조선과 함께 고구려력사연구에 중심을 두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여왔다. 특히 고고학강좌 전 강좌장이었던 채희국선생과 연구사들은 지난 시기 수많은 고구려유적들을 발굴하였다.

김일성상계관인이며 후보원사 교수 박사였던 채희국선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을 받으며 한생을 고구려력사연구에 바친 조선력사학계의 원로였으며 권위있는 고구려력사전

문가였다.

연구집단이 제일먼저 진행한 사업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대성산안학궁터에 대한 발굴이었다. 당시 대성산일대에는 고구려의 왕궁터였던 안학궁터와 수많은 고분을 비롯하여 고구려시기의 발전된 문화를 보여주는 력사유적들과 유물들이 많이 묻혀있었다. 한것으로 하여 발굴조사사업은 매우 방대하였고 애로와 난관 또한 많았다.

하지만 연구집단은 조사발굴사업을 중단함이 없이 내미는 한편 발굴된 유적유물들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수천년전에 선조들이 남겨놓



평양시 대성구역 립흥동에서 발굴된 우물에서 나온 고구려돌바둑판조각

연구집단이 조사발굴한 유적유물의 일부



청암동토성 북성벽 전경



고구려청성대터 전경



청암동토성 유적유물

고구려청성대터에서 나온 유적유물



고고학연구소 소장 실장 교수 박사 리광희

은 흔적과 역사문헌들을 통해 당대 사회의 면모와 사람들의 생활세태를 밝혀내야 하는 연구는 정치, 경제, 문화는 물론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발굴조사과정에 대성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고구려의 도읍지였으며 고구려가 427년에 중국의 집안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586년까지 이곳이 수도였던 사실, 당시 고구려는 매우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다.

그후에도 연구집단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릉을 비롯한 수많은 역사유적들을 발굴조사하여 건국과정과 국토통일을 위한 고구려의 남방진출과정 등에 대해서와 동서 6 000리, 남북 5 000여리를 차지하였던 강대한 국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밝혀냈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도서 《대성산일대의 고구려유적에 관한 연구》, 《고구려시조 동명왕》, 《동명왕릉과 그 부근

의 고구려유적》, 《고구려력사 연구》 등을 세상에 내놓았다.

하여 강대했던 고구려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소화하려 들던 일본과 그 어용사자들의 그릇된 주장의 허황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게 되었다.

이곳 연구집단은 고구려시기 성곽과 유물, 고분에 대한 연구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강대했던 고구려에는 외래 침략자들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한 군사적요충지로 리용하였던 많은 성곽과 함께 선조들이 남긴 유물, 고분들도 수없이 많다. 그것을 다 발굴조사하여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지녔던 애국의 넓과 슬기, 재능을 알려 주려는 마음을 안고 그들은 분발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수많은 성곽들을 조사발굴하고 고증하였다.

조국의 서북부지역에 있는 고구려의 옛 성곽들에 대한 현지조사로 연구사업의 첫걸음을 떼었을 당시까지만 해도 남일룡박사를 비롯한 대부분 연구



교수 박사 남일룡



박사 부교수 리영식

사들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었다. 그들은 고구려시기의 옛 성터와 성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고증하는 길에 귀중한 청춘시절을 보내었다.

단란한 가정을 멀리해 둔 그들속에는 태어난 아들의 첫 돌생일도 한장의 전보로 축하해준 젊은 연구사도 있었고 병으로 신고하는 안해를 부모들에게 말기고 역사의 흔적을 찾아 고심참담한 편답의 길을 이어간 연구사도 있었다.

민족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을 바쳐가는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수십개의 성곽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고 고구려의 성곽분포정형도 밝혀지게 되었다. 그 나날 그들은 수도성방위를 위한 성방어체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전국을 하나의 요새로 만들었던 고구려사람들의 슬기와 재능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도서 《중세 우리나라 서북지방의 성방어체계를 내놓았다.



박사 부교수 강분이

그후에도 그들은 고조선의 수도성이었던 청암동토성과 고구려의 수도방위성이었던 대성산성 등 수십개의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고증하고 새롭게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유물분야의 연구사들은 고구려가 민족문화발전에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고 동방문화를 꽃피우는데 크게 기여한데 대해서도 론증하였다. 최근시기에 만도 그들은 남포시 온천군에서 고구려시기의 소금생산유적을 발굴하고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에 대한 연구로 당시 고구려의 발전된 소금생산기술을 학술적으로 론증하였다.

고분분야의 연구사들도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로 등록되고 민족의 자랑으로 되는 고구려벽화 무덤의 분포지역을 밝히고 인물

풍속그림, 장식무늬그림, 사진도의 변천과정, 무덤벽화를 발굴하였다.

그들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대성동무덤에서 나온 여러 유물들을 통해 고구려의 문화발전면모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고 그것이 동족의 나라들이었던 백제, 가야의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이렇듯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안고 남모르는 길을 걷는 역사가들에 의해 역사의 진실은 밝혀지고있다.

글 강경수, 사진 리철



학술토론회를 진행하는 연구사들

오랜 역사를 가진 말타기 풍습



고구려벽화무덤에 새겨져있는 말탄 무사의 그림

요즘 조국의 수도 평양과 신의주, 남포 등에 일떠선 승마구락부들에서 근로자들의 승마운동이 날로 활기를 띠고있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풍치수려한 곳에 자리잡고있는 남포시승마구락부를 찾았습니다.

일매지게 뻗어간 주로를 따라 기운차게 말을 몰아가는 애호가들의 모습은 참으로 볼만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남포시 항구구역에서 사는 최은실녀성을 만났습니다. 몇년전 평양에 시집간 언니네 집에 갔던 그는 미림승마구락부에서 능숙하게 말을 타는 평양사람들이 은근히 부러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사는 남포시에도 승마구락부가 세워졌으니 아무때나 와서 말을 탈 수 있고 언제나 평양사람들과 겨루어볼 자신심도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의 남편은 안해가 승마운동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내성적인 성격이 활달해졌을뿐만 아니라 늘 소화가 안된다, 허리가 아프다 하던 소리가 언제 잦아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말타기는 사람들에게 량만과 희열을 주고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는 좋은 운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조국인민들의 승마열풍을 대할 때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민족의 말타기 풍습에 대해 돌이켜보곤 합니다.

그럼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의 하나인 말타기 풍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말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길들여온 집짐승의 하나입니다. 말은 순한 성질로 하여 사람들과 인차 친숙해졌고 또 사람에게 복무한 역사도 오래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늙은 말이 길을 안다.》,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래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 《저는 말도 바른길로 간다.》 등과 같이 말과 관련된 속담, 성구들이 수없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말을 집짐승으로 부리기 시작한것은 대체로 B.C. 4000년경이라고 하며 말타기를 시작한것은 B.C. 2000년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말은 그 가치와 우열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웠습니다. 우수한 말을 기린마, 준마, 상마(상등말), 천마(천리마), 명마, 룡마, 량마 등으로 불렀으며 우둔하고 성질이 사납고 거칠며 갈개는 말들을 악마(나쁜 말), 황마(거친 말), 한마(사나운 말) 등으로 불렀습니다.

고조선시기의 무덤들인 룡동반도의 여러 무덤들에서 마구류가 나온것으로 보아 고조선사

람들이 구리로 말자갈을 만들어 말을 부러였고 말치레거리도 만들어 말들을 장식하였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 범의구석유적과 같은 여러 고대유적들에서 발굴된 수많은 말뼈들, 말관자 등은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말타기를 즐겨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말타기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조선민족의 용감하고 씩씩한 기상과 상무기풍을 비롯한 우수한 민족성을 잘 반영하고있는 민족체육의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말타기를 제일 잘한것은 고구려사람들이였습니다.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 훈련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고구려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말을 잘 타고 말타기를 생활상요구로 여기고있었다는것은 동포여러분도 다 알고있는 시조왕인 고주몽(동명왕)의 건국과정과 온달이야기가 말해주고있습니다.

말타고 사냥하는 무사들의 용감한 모습은 4세기-5세기의 고구려벽화무덤들인 춤무덤, 사냥무덤, 약수리벽화무덤, 대안리1호무덤 등에 생동하게 반영되어있습니다.

고구려의 기마술은 고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말타기와 활쏘기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국방에 매우 유익한 무술체육이였습니다. 옛기록에서 15세기 전 기간 조선봉건왕조에서는 말타기와 활쏘기를 장려하면서 말을 나라의 세가지 보물중의 첫째로 꼽

곤 하였다는 자료만 보아도 당시 말을 대단히 중시하였다는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조실록》)

특히 이 시기 이체를 띤것은 마상재였습니다.

마상재는 말그대로 말우에서 채주를 부리는것인데 달리는 말우에서 서서 달리는것, 말안장을 잡고 좌우로 몸을 뒤채기도 하고 말에 매달려 발을 땅에 끄는 동작, 달리는 말안장에 등을 대고 옆으로 눕는 동작, 거꾸로 서있는 동작, 말옆구리에 붙어 몸을 숨기는 동작, 눕는 동작 등 다양한 동작을 진행하는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전통적인 말타기 풍습을 련련히 이어오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강토를 지켜냈으며 그 우수한 문화를 널리 전파시켰습니다.

인민이 주인된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평범한 인민들 누구나 즐길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으로 되어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누구나 곳곳에 꾸려진 승마구락부들에서 말타기를 즐겨하고있습니다.

그럼 그 어디에 있건 승마운동을 할 기회가 있으면 선조들이 지녔던 용감하고 씩씩한 기상과 상무기풍을 비롯한 우수한 민족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되새기기를 바라며 이 글을 끝맺겠습니다.

글 러해, 사진 김평



승마운동은 평양에서뿐 아니라 신의주, 남포 등 지방들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을지문덕

예로부터 돌이 많아 석다산(평안남도 증산군)이라고 부르는 조선서해의 나지막한 산기슭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을지문덕(6세기말엽-7세기초엽)은 집이 가난하여 어릴 때부터 바다가에 나가 소금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였다.

하기에 언제부터인가 마을에서는 그를 보고 《소금장수》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온종일 바다가에 나가 소금구이를 하는데다가 사람들로 부터 《소금장수》로 불리우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소금구이를 그만둘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자기때문에 늘 애쓰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소금구이를 계속하였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을지문덕의 나이가 16살이 되던 어느해 가을날이었다. 그날도 해종일 구워낸 소금자루를 지고 밤이 깊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던 을지문덕은 자기의 앞길을 막아서는 범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다.

잡은 범을 팔아 쓰러져가는 집을 고쳐 짓고 고생하는 어머니를 잘 모시리라 생각한 을지문덕은 장사군들과 적당한 값으로 범을 흥정하였다.

이때까지 을지문덕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던 어머니는 범을 팔아서 어떻게 하려는가고 조용히 물어보았다.

아들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생각하는것은 자식으로써 더없이 기특한 일이다. 그러나 부모생각 하나만 가지고서는 자식구실을 다했다고 할수 없다. 자고로 나라가 있고서야 가정도 있다고 일러왔거늘 너는 어찌하여 어미생각을 하면서도 나라생각은 못하느냐. 내 지금껏 집안살림이 여의치 않아 말을 못했다만 너는 래일부터 경당에 가서 무술을 배우거라.》

말을 마친 어머니는 장농속에 소중히 보관하고있던 보검한자루와 그동안 소금을 판돈으로 마련한 준마의 고삐를 을지문덕에게 쥐여주었다.

풀죽을 먹으면서도 고구려의 상무기풍에 아들을 따라세우려고 훈전을 야기신 어머니, 아들이 한가정의 아들만이 아닌 나라의 어엿한 아들이 되어 위훈 세우기를 바라며 보검을 마련하고 준마를 사오신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당부대로 을지문덕은 경당에 들어가 무술을 배워 고구려장수로 자라났다.

그후 을지문덕은 어머니의 당부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고구려를 지키는 싸움마다에서 큰 공을 세웠다.

어느해인가 외적들이 고구려에 침입하여왔을 때 을지문덕장군은 고구려군의 총지휘관으로 되었다.

그는 적군의 약점을 리용하여 청야수성전술, 유인전술



등을 써가며 적들을 치기로 결심하였다. 먼저 성밖의 인민들이 식량을 가지고 성안으로 피신하도록 하였으며 성밖의 마을들을 비우면서 우물도 모조리 메우도록 하였다.

한편 고구려군사들은 적들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접전하다가 주동적으로 퇴각하여 피로한 적들을 계속 유인하면서 국내깊이까지 끌어들여 죽쳐버리었다.

을지문덕의 지휘밑에 고구려군사들은 퇴각하는 적에 대한 추격전을 벌려 큰 승리를 거두었다.

참패소식에 접한 외적의 총지휘관은 그 다음날로 총퇴각을 명령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싸움은 고구려군사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을지문덕장군의 능숙한 지휘에 의하여 마련된것으로서 중세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사에서 빛나는 장을 새기었다.

글 김일봉

역사이야기

과부바위(홍바위)

함경북도 무산에는 과부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붉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무산지방의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는 외적에게 남편과 딸을 빼앗기고 어린 아들과 함께 고독하게 살아가는 과부 홍씨가 살고있었다. 홍씨는 고생속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히 키워 아버지의 원수를 꼭 갚게 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군세게 살아나갔다.

그러던 어느해 추석날이었다. 아들과 함께 조가을을 하던 홍씨는 갑자기 말을 타고 달려드는 100여명의 외적을 발견하였다.

홍씨는 외적들을 몽땅 잡아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관청에 보내는 한편 자기는 재빨리 집에 들어가 새옷을 갈아입고 곱게 단장한 다음 마을어구에 당도한 적장앞에 나섰다.

적장은 홍씨에게 그 지방의 군사요충지인 어유간보가 여기

서 몇리나 되는가고 물었다.

홍씨는 어유간보는 여기서 얼마 멀지 않으나 오늘은 병정들이 가을훈련을 끝내는 날이어서 한잔씩 나누고 지금 사기가 충천해서 비호같이 날뛰고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홍씨는 오늘 밤 이 마을에서 편히 쉬고 래일 아침 쳐들어가면 대장은 물론 병졸들까지도 술에 곤드라져있을터이니 피 한방울 흘리지 않아도 어유간보를 손에 넣을수 있다고 말하였다.

홍씨의 말을 들은 적장은 그 말도 그럴듯하려니와 그의 미모에 마음이 흔들려 마을에서 하루밤 지내고 다음날 아침일찍 어유간보로 쳐들어가기로 작정하였다.

홍씨는 밤을 새워가며 음식과 독한 술을 적장과 부하들에게 취하도록 먹였다.

다음날 대낮이 되어서야 잠자리에서 일어난 적들은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어유간보

로 쳐들어갔으나 철통같이 방비하고있는 병사들의 반격에 태반이 쓰러지고 적장이하 몇놈만이 살아서 도망치게 되었다.

홍씨는 미리 길목에 동리장정들을 매복하게 하고있다가 쫓겨가는 적들을 일망라진하였다.

그런데 그는 불행하게도 적장의 악랄한 술책에 걸려 적들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적장은 홍씨에게 속아넘어간것이 분하여 그를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고 계속 때리었다.

그러나 홍씨는 마지막 피 한방울 남을 때까지 완강하게 적에게 대항하였다.

그때 소나무밑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는 홍씨의 붉은 피로 물들여졌다.

그때부터 그 바위를 가리켜 홍바위 또는 과부바위라고 전해오고있다.

글 김영은

상식

쇠뇌

우리 나라는 쇠뇌의 력사가 가장 오랜 나라이다. 일명 기계활로 불리우는 쇠뇌는 활과 몸통의 두 부분으로 되어있다. 활은 화살 또는 다른 형태의 탄알에 발사력을 주고 몸통은 탄알을 재우고 그것의 발사 방향을 잡아준다.

흔히 쇠뇌는 쏠 때마다 탄알을 하나씩 재우게 되어있는 단발식쇠뇌와 단번에 여러개의 탄알을 탄창에 재우는 연발식쇠뇌로 되어있다.

우리 선조들이 고대에 쓴 단발식쇠뇌는 평양근방의

고대무덤에서 발굴되었다.

쇠뇌는 점차 발전되어 7세기중엽에는 화약통사식 쇠뇌로 간주되는 사거리가 1 500여m인 천보노가 발명되었다.

이 사격무기는 그 구조와 동작원리, 제작기술이 우수하여 당시 군사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고구려시기의 쇠뇌를 두고 무기전문가들은 《그 구조가 간단하고 교묘한것으로 하여 현대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오늘의 소총(보총)처럼 동작하니 흥미가 있다. 2 000년전의 고안이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라고 평가하였다.

* * *



평안남도 역사유적 백상루

안주의 백상루를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백상루를 찾아가는 관광객들과 함께 즐거운 려행길에 올랐다.

관광객들을 태운 빠스는 평양시의 여러 거리들을 지나 교외의 도로를 살같이 누벼나갔다.

예전과 같이 관광객들앞에 나선 안내원은 청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우리는 예로부터 판서8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백상루를 찾아가고있습니다. 백상루가 어디에 있으며 그 이름의 뜻에 대해 아시는분이 있습니까?》

마치 안내원의 이 물음을 기다리고있든듯한 중년녀인이 활기에 넘친 목소리로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누가 자기의 말을 이을세라 《백가지 상서로움을 다 볼수 있는 루정이라는 뜻에서 백상루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대답이 끝나자 빠스안의 관광객들이 약속이나 한듯 박수를 보냈다.

안내원은 《예, 저분은 아마도 안주의 백상루에 이미 가보신것같습니다. 저의 추측이 맞습니까?》라고 다시 반문하였다.

그러자 중년녀인은 옳다고 하더니 자기의 고향은 안주시인데 명절날이나 휴식일이면 백상루는 많은 사람들로 흥성거리었다고, 고향에 가본지도 20년이 넘었기에 이렇게 딸을 데리고 백상루구경을 가보려 한다고 하였다.

그사이 빠스는 안주시에 들어섰다.

관광객들은 너도나도 창밖을 내다보며 시내구경을 하였다.

잠시후 빠스가 멈춰서자 30대초반의 젊은 녀강사가 우리를 반겨맞았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일행은 백상루에 올랐다.

안주시의 전경을 이윽도록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백상루의 지붕과 기둥, 마루, 단청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는 관광객들에게 강사는 백상루에 대한 해설에 앞서 안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안주는 고구려(B.C. 277년-A.D. 668년)

시기에는 식성, 고려(918년-1392년)초기에는 평원이라고 하였는데 12세기중엽부터 안주라고 고쳐 불리웠다는것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고 교통의 중심지였던 안주성은 내성과 외성, 신성의 3개 부분성으로 이루어져있었다.

고려의 인민들은 안주성 내성의 북쪽성벽 청천강가언덕우에 백상루를 세우고 이곳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투를 하였었다.

우리는 백상루에 대한 그의 흥미진진한 해설에 저도모르게 끌려들어갔다.

강사의 해설은 계속되였다.

《예로부터 안주의 백상루는 판서8경의 하나로 그 이름이 높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판서8경이라고 하면 안주의 백상루는 물론 평양의 련광정, 성천의 강선루, 녕변의 약산동대, 선천의 동림폭포, 의주의 통군정,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검정을 꼽을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참으로 황홀하여 백가지 상서로움 다시말하여 좋은것을 다 볼수 있는 루정이라는 뜻에서 백상루라고 불리웠습니다.》

백상루는 고려때 처음 지은후 1753년에 다시 고쳐 지음으로써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에 루정건축을 대

표하는 건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백상루는 2층다락으로 하고 아래층과 웃층의 기둥을 이어 대고있었다. 아래층의 층고도 2m가 넘었기때문에 아래에서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게 되어있었다. 이 루정의 단청도 매우 훌륭하였다.

강사로부터 우리는 려사유적 백상루가 오늘날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변모되어 인민들이 즐겨 찾고있다는데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을 떠났다.

글 연옥, 사진 송대혁



장기수풀이 (27)

장기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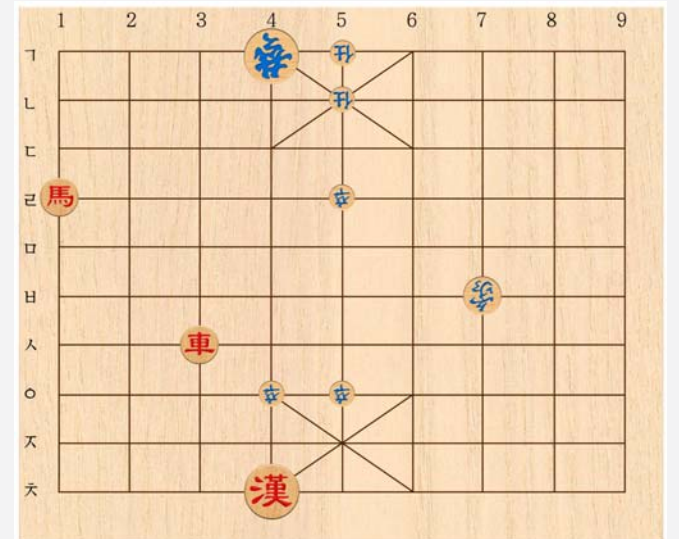
《구멍포는 망포》

포가 궁자리에 놓이게 되면 방어하기가 매우 불리하며 거의나 지는데로부터 나온 말이다.

구멍포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놓게 되지만 이렇게 되면 공격은 물론 방어하는데서 절망적인 형세가 조성되는 실례가 많은데로부터 조언적으로 하는 말이다.

장기수풀이 (26)에 대한 답

h6차c6, l5궁c6, h3말c4, g3상c5, g2포g6, l6사g6, l8차l5, g6사l5, r9말l8, c6궁l6, c9포r9, 《장훈》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한다.

상식

검은모루유적



검은모루유적에서 발굴된 석기의 일부



큰꽃사슴아래턱뼈화석

검은모루유적은 구석기시대전기의 동굴유적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왔다는 것을 실증해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상원군 흑우리(검은모루)에서 알려진 이 유적은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 발굴조사되었다.

동굴안의 퇴적층에서는 원시인들이 쓰던 타제석기와 함께 수십종의 짐승뼈화석이 발견되었다. 검은모루유적의 석기들은 매우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갖형성된 사람들의 목적이식적인 로동활동의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진 창조물들이었다.

검은모루유적에서 나온 석기의 종류에는 주먹도끼모양석기, 사다리형석기, 뽕족끝석기, 쪼각석기 등이 있다.

검은모루유적에서는 코끼리, 큰쌍코뿔이, 상원말, 큰꽃사슴, 넓적큰뿔사슴, 원숭이 등의 짐승뼈화석이 발견되었다.

검은모루유적에 대한 과학적인 년대판정을 진행한 데 의하면 100만년 이전시기의 원인들이 남긴 구석기시대전기유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검은모루유적은 우리 나라에서 인류발생의 첫 시기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을 실증하는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서 구석기시대전기문화 특히 원시인들의 생활을 연구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 * *

오늘도 울려 퍼지는 3.1의 메아리

지난 세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을 식민지통치의 기본정책으로 규정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가혹한 탄압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뇌까리며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일제의 야만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쌓이고 쌓인 조선인민의 민족적울분과 사무친 원한은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으로 폭발하였다.

마침내 조선인민은 1919년 3월 1일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고 웨치며 일제를 반대하는 항쟁에 떨쳐나섰다.

평양에서 일어난 대규모적인 반일시위투쟁을 계기로 하여 시작된 봉기는 삼시에 전국각지로 번져갔으며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

외에 있는 동포사회에까지 파급됨으로써 전민족적인 애국항쟁으로 확대발전하였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해 나선 조선인민의 투쟁기세에 당황망조한 일제는 야수적인 진압에 나섰다.

봉기가 시작된 첫날에 일제는 수많은 헌병, 경찰무력을 긴급출동시켰으며 완전무장한 수비대병력까지 내몰았다. 조선주둔 일본군이 여기에 합세하였으며 일본본토에서는 정예무력을 증파하였다.

그러나 시위군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일본군과 경찰을 맞받아 용감하게 싸웠다. 그들은 비록 맨주먹이었지만 돌맹이를 던지면서 일제경찰 및 군대들과 맞서 앞대렬이 쓰러지면 그 뒤대렬이, 뒤대렬이 쓰러지면 또 그 다음대렬이 앞장에 나서면서 전진하였다.

3.1인민봉기는 비록 실패하였으나 나라의 독

립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선민족의 불굴의 기개를 뚜렷이 파시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군사적강점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의 민족적각성을 크게 높여주었으며 식민지에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운동발전에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일본이 패망(1945. 8. 15.)한지도 80년이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도 조선인민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저들의 범죄력사를 터무니없이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면서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국수주의사상으로 세뇌시키며 군국화의 길로 줄달음쳐왔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군사적해외진출을 로골적으로 추구하고있다.

일본의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2023년에 일본은 첫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으로 여러 나라에 감시레이다와 경비함 등을 넘겨주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4개 나라를 지정하고 총액 50억달러규모를 할당하였다. 이것은 전해에 여

러 나라들에 감시레이다와 경비함 등을 넘겨주는데 든 비용보다 2.5배정도 확대된 액수이다. 올해는 총액수와 함께 대상국수도 더 늘어날것이 예상되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정부개발원조를 군사분야에로 확대하고 실행하고있는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일본당국의 군사분야에 대한 원조는 사랑받린 독약이며 해외침략의 전주곡이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과거 일제의 대학살범죄를 끝까지 철저히 계산할것이며 쌓이고 쌓인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 말것이다.

이것은 3.1인민봉기자들의 피의 절규이기도 하다.

글 김영은



일제는 무장한 헌병, 경찰, 군대까지 동원하여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야수적으로 체포, 투옥하고 학살하였다.



룡악산

룡악산은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룡악산동과 룡산동, 룡봉리사이에 있는 산이다.

해발높이가 293m인 룡악산은 기묘한 바위봉우리가 솟아있고 만발한 온갖 꽃들과 록음질은 숲, 가을의 붉은단풍 등이 신비하게 조화를 이루어 《평양의 금강산》으로,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왔다.

룡악산이란 이름도 산봉우리가 마치 《룡》이 금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것과도 같은 기묘한 생김새를 갖추고있다 하여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산은 사방으로 깊은 골짜기들이 나오으며 산마루우에는 바위들이 많이 드러나있어 산세가 험하다. 특히 북동쪽비탈면에는 깎아지른듯한 벼랑이 있는데다가 산비탈은 30° 이상으로서 급한 것이 특징이다.

산중턱에는 바위짜에서 수정처럼 맑고 차거운 물이 사시장철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샘이 있다.





법운암의 본전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



룡악산의 토양은 갈색산림토양이다. 산에는 약 600여종의 식물들이 퍼져있는데 산림의 대부분은 소나무숲 또는 소나무와 참나무의 섞임숲으로 되어있다.

산에는 보기 드문 누리장나무, 보리수나무, 느티나무, 검정알나무 등이 있으며 참나무, 목란 등이 많이 퍼져있다. 그리고 매화노루발풀, 병아리란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해당 속에 한

종밖에 없는 희귀한 식물들도 있다. 룡악산에는 우리 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특별히 보호 관리되고있는 룡악산느티나무, 룡악산참중나무, 룡악산회화나무가 있다.

룡악산은 평양시의 아름다운 전경과 교외의 농촌풍경을 한눈에 다같이 볼수 있는 경치가 뛰어난 곳이다.

룡악산에는 산의 꼭대기에까지 탐승길이 잘 닦아지고 근로자들이 휴식의 한때를 마음껏 즐길수 있게 모든 조건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산기슭에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만경대소년단야영소가 있다.

룡악산에는 역사유적들인 법운암, 룡곡서원이 있다.

글 강은순, 사진 임철명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